

SPACE ⁵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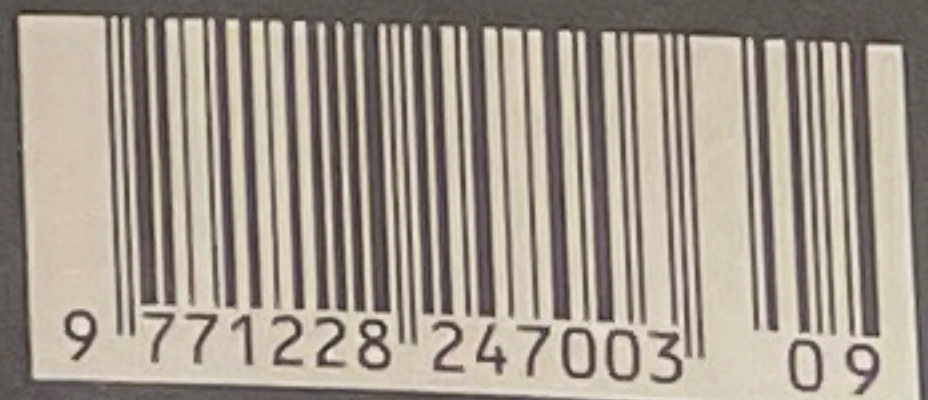


空間

FRAME Finding Common Values: VOID architects

FEATURE Ten Years of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Following the Traces of Yeongju

Terra Lodge - Ramos Castellano architects • Yonsei University Engineering Hall 1 and 4 - AUM&LEE Architects&Associates • Midas Resort - Roh Seungbom •
The Masonry - stpmj Architecture • The City of Munster: It Becomes the Sculptural Site for Body, Time, and Space • Corporate Modernism in America and JUNGLIM ARCHITECTURE •
Seoul Streets-Ironic 5 Places of Urban Stories 5: Seongsan 1-dong Community Streets



ISSN 1228-2472

₩20,000

테라 로지

Terra Lodge

라모스 카스텔로 아키텍츠
Ramos Castellano architects

Architect: Ramos Castellano architects (Eloisa Ramos, Moreno Castellano) **Design team:** Camille Cellier, Marvin Delgado, Eriberto da Luz **Location:** Mindelo, Cabo Verde **Programme:** old colonial house refurbishment, office use, 13 rooms hotel **Site area:** 1,200m² **Building area:** 485m² **Gross floor area:** 815m² **Height:** 13m
Structure: RC **Exterior finishing:** lime putty plaster and wooden verandah **Interior finishing:** lime putty plaster
Structural engineer: Ildio Alexandre **Electrical engineer:** Ricardo Martins **Construction:** Duka
Design period: 2014 – 2016 **Construction period:** 2016 – 2017 **Client:** Theo Lafrey

edited by Yoon Solhee | photographed by Sergio Pirrone | materials provided by Ramos Castellano architects





테라 로지 건물이 들어선 마을은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주택들로 가득 차 있다.
The building site is situated around a historic house from early 1900.



옛것과 새것의 합주

An Ensemble of Old and New Buildings

모레노 카스텔로, 엘로이사 라모스(라모스 카스텔로 건축사무소 대표) × 「SPACE(공간)」
Moreno Castellano, Eloisa Ramos (principals, Ramos Castellano Architects) × SPACE

SPACE: 테라 로지는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의 작은 섬 상비엔트에 있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 때 지어진 오래된 집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이 건물 역시 신고전주의 양식을 띤 19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기존 건물과 부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이슈는 무엇이었나?

엘로이사 라모스(라모스): 이 일대는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주택들로 가득 차 있다. 민델로 시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자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했던 마르케스 가문의 땅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건축으로서 이곳의 옛 건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건물을 짓고 싶었다. 부지 주변은 아주 독특한 도시 조직에 얽힌 곳이다. 우리는 새로 지어진 부분이 최대한 주변에 녹아들게끔 하고자 했다. 호텔 건물 뒤편에는 새 건물과 오래된 건물이 마주하는 골목길과 아와 테라스가 있다. 이 같은 구성을 통해 과거와 대화를 나누는 장소를 마련하고, 주변환경과도 조화롭게 연결되도록 했다.

SPACE: 반대로 기존 건물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치려고 했는가? 주변 건물과 비슷한 듯 달라 보이는 건물의 디자인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모레노 카스텔로(카스텔로): 우리는 건물이 너무 부각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건물들과 함께 춤을 추는 듯한면서도 자연스럽게 흡수된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빗대어 본다면 주변의 건축물들과 같은 주파수를 내어 음을 증폭하면서 노래 전체를 아주 좋게 만들거나, 적어도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랐다. 인근 건물들과 매스 형태나 크기가 비슷해 보이면서 태양의 궤적, 바람 통로, 조망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정한 디자인이다. 라모스: 건축주는 호텔의 객실 수와 같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원하는 바가 뚜렷했지만, 디자인에 필요한 결정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부지의 환경에 완벽하고 적합한 디자인을 찾는 것이 우리가 처음 정한 콘셉트이자 전략이었다. 땅과 조화를 이루고 기존 건물의 조건에 꼭 맞는 접근을 찾고자 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절도해서 기존 지형을 해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지역의 전통적인 구축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하면서 기존의 건물 형태와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나갔다. 우리에게서는 재료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SPACE: 대다수의 호텔 건물은 많은 마감재를 사용해 화려하게 건물 안과 밖을 치장한다. 그에 비해, 이 건물은 소박한 모습이다. 투박한 목재를 사용해 일면을 디자인하거나 오일뱅크를 펴서 대문을 만드는 등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그친다.

카스텔로: 일본에 '와비 사비(わびさび)'란 말이 있다. 단순하고 투박한 상태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란 뜻이다. 굳이 나무를 멋있게 치장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 역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진실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을 지닌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환경과 이웃의 덜 아무려된 듯한 건물들, 낡것으로의 건축과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같은 주파수를 자극했다. 라모스: 우리는 항상 가능한 한 마감재 고유의 물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설계했다. 단순하지만 따분하지 않은 디자인을 찾는 일은 가장 이루기 어려운 일 중 하나다.

SPACE: 건축에서 친환경 시스템(혹은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가?

카스텔로: 지속가능성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건물 혹은 건축이란 것은 한 장소에 어떤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공간이나 마감재를 정하는 것을 넘어 모든 과정을 지켜보려고 한다. 새로운 차원을 덧붙이는 것이다.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 건물에서 느껴지는 감각 혹은 평화, 조화, 아름다움 등 우리가 건축 과정에서 얻거나 받는 기분까지도 생각해본다. 어떤 면에서 건축은 5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전체적 조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찾기가 건축의 과정이고, 그 결과가 건축이다. 우리가 이뤄내고 싶은 목표다. 라모스: 우리에게 건축은 행복의 근본적인 부분이다. 건축은 에너지의 문제이자 균형과 조화의 문제이다. 우리는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한 건축 해법을 연구한다. 부분으로서가 아닌 세계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말이다. 또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수공예품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프로젝트의 비용이 이 섬 안에서 분배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와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균형이 우리 삶을 지속시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SPACE: Terra Lodge is in São Vicente, a small island in Cabo Verde, Africa. It is a place characterised by the many old houses built during the Portuguese colonial era. The project is a remodeling of a neoclassical building from the 1900s. What is the issue that you considered to be the most pertinent to the existing building and site?

Eloisa Ramos (Ramos): The site is situated around a historic house from early 1900s that belonged to the historical and influential Marques family, and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Mindelo. We worked to accomplish our goal of devising a sustainable project that would integrate the old and the new. The surroundings form a very tangled, peculiar site, with a very unusual urban fabric. Our goal was integrate and dissolve our new constructions and interventions as much as possible. Aside from this building, there is an open-air patio in the backyard that extends alongside the new buildings, presenting a dialogue with the historic and establishing a harmonious connection to the old house.

SPACE: On the other hand, what did you intend to change in the existing building? Explain your design strategy when working on a building that looks quite distinguished among its many similarities with other neighbouring buildings.

Moreno Castellano (Castellano): We wanted it to appear humble but present. We wanted to dance together with the other buildings. We want to integrate our forms in order to stimulate the same frequencies: the built environment was like an orchestra playing and we wanted to sing with them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music, or at least to create a

new harmony. Our buildings are similar in terms of mass and dimension, but are studied in accordance with the solar path, with the wind direction, with the view.

Ramos: The initial concept and strategy for the project was to build a complete bioclimate, a fully integrated approach, in harmony with the site. As the client had a clear idea of what he wanted in terms of number of rooms etc., but had no idea about architecture, it was a good field for us to experiment with materials and to use the traditional solutions in a new way, thus creating harmony between the existing morphology and digging away just the necessary amount to use as support to land the buildings.

SPACE: Most hotel buildings decorate their inside and outside with different splendid finishing materials. In this case, the building is much simpler. You designed the structure with coarse woods, or used raw materials such as an oil tank flattened and transformed into a front gate.

Castellano: It is *Wabi sabi*. We accept the reality, giving new meanings. A tree does not need to be finished to be wonderful. This is the strategy. Truth is the most powerful and beautiful thing. It was important for us to be in dialogue with the surrounding, unfinished buildings, with raw architecture. We stimulate the same frequencies with other purposes in mind.

Ramos: We always try to shape our finishing materials in order to create as great a natural impression as possible. This is an attempt to reach simplicity, which is the most difficult possible mode to achieve if you don't want your designs to fall into banality.

SPACE: What is your opinion on sustainable architecture? To what extent can an eco-friendly system (or sustainable architecture) be applied in architecture?

Castellano: It is something total. A building, a work of architecture, is as you say a process. So we try to see the whole process, not only the space and the materials, but also from another dimension. The workers, the sensation, the feelings, the peace, the harmony, the beauty, not only in terms of shapes, but in terms of feelings that we radiate and receive with the creation of that process (architecture). In a way is an architecture that comes from a fifth dimension. You find the search for an entire experiential harmony within it, and the search is the process. The result is the architecture. The objective is a total harmony and this is what we try to attain.

Ramos: For us architecture is a fundamental part of happiness. It's a matter of energy, of balance and harmony. We study solutions with local resources, and yet we have a global vision as a part of the whole global process of sustainability, trying not to separate parts from the whole. Moreover, when we use local handcrafted items as much as possible we distribute the money raised for the projects throughout the island and create an economy focused on the island and local manufacturers. The same balance that you find in Nature, the one that allows the continuation of life on earth, is the one that we try to rule our architectural ecology.



건축가는 이곳의 옛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짓고자 했다.
The architects' goal was
integrate and dissolve their
new constructions and
interventions as much a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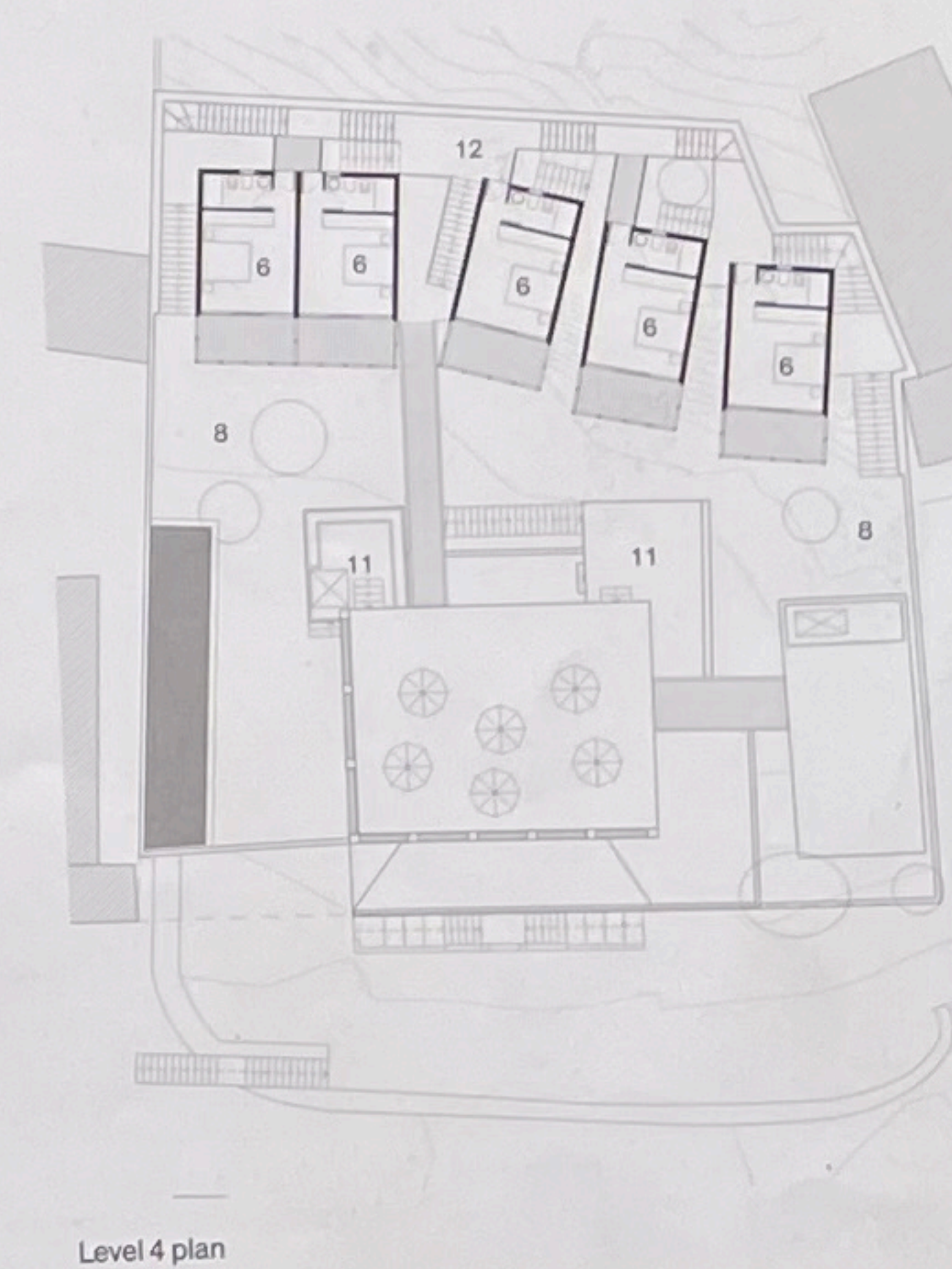


호텔의 입구는 금속의 석유 통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 이 밖에도 지붕 위의 PV 태양광판, 물 재활용 시스템을 적용해 자연친화적인 건물을 만들고자 했다.
The gate are made with recycled metal from the petroleum Barrels. Recycled material, Photovoltaic panels in the roofs, water recycling systems for the irrigation, emphasize the ecological side of the project.

가능한 한 마감재 고유의 물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해 재료가 가진 날 것으로서
이름 드러내도록 했다.
The architects always try to
shape their finishing materials in
order to create as great a natural
impression as possible.



1. balcony
2. entrance
3. office
4. living room
5. restroom
6. room
7. pool
8. garden
9. reception
10. warehouse
11. terrace
12. footbridge





석회질 페티로 마감한 벽색 건물에 목재를 덧붙여 파시드를 완성했다. 태양, 바람, 파도의 물거품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여 적절한 대비를 만든다.
The external materials remain raw, wood for the verandah, lime puddle for the white buildings, for contrast the aggressive elements, sun, wind, sea spray.



공간의 구성방식은 다른 건물들과 함께 춤을 추는 듯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흡수된 듯한 느낌을 전한다.
The architects wanted to dance together with the other buildings, and to integrate their forms in order to stimulate the same frequencies.



호텔 건물 뒤편에는 새 건물과 오래된 건물이 마주하는 접근로와 야외 테라스가 있다.
Aside from this building, there is an open-air patio in the backyard, presenting a dialogue with the historic and establishing a harmonious connection to the old house.

모레노 카스텔라노는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 출신으로 카보베르데의 민델라 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다. 그는 혼합 매체를 사용해 재료의 잠재적 가치를 탐험하는 건축 작업을 하고 있다.
엘로이사 라모스는 이탈리아 카보베르데의 산투안타 섬 출신으로 포르투갈 소재의 코임브라 대학교를 졸업했다. 국제적으로 여러 곳을 오가며 활동하다가 2004년 카보베르데의 민델라 시에 건축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는 직관적이고 명확하고 그리고 단순한 건축 작업을 하고 있다. 도시 문맥과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지에 적합한 기술적 해법을 찾는다.

Born in 1977 in Sardinia, Italy, **Moreno Castellano**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based in Mindelo, Cabo Verde. His architecture is entirely focused on exploring the potentialities of several materials, using mixed media to shape at the same time matter and landscapes.
Born in 1976 in the Island of Santo Antao, Cabo Verde, **Eloisa Ramos**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Coimbra in 2002. She lived and worked in three different continents, before deciding to open an architectural studio in Mindelo, Cabo Verde in 2004. Her approach to architecture is direct, clear and simple. The shape of her buildings came from a clear and sensitive vision of the context, the materials, and the available technology on chosen sites.

